



문화예술 속

# 교량의 미학

문학 (시, 수필, 소설) · 미술 (회화, 조소, 공예, 영상) · 공연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축제)  
**작품 속 교량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서**

문화예술(文化藝術)은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이다.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기에 문화와 예술을 융합하여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예술은 문학, 영상, 공연, 전통, 음악 등 예술 및 문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출처: 위키백과]



저자 문지영은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서로는 ■내려놓기(2022년, 교보eBook 전자책)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2012년 초판, 2022년 초판 3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미학적으로 교량보기(2014년 초판,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201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2015년 초판 공저, 2018년 개정판 공저, 초판 3쇄+2판 3쇄,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숫자로 보는 대한토목학회 70년(토목 70년(1951-2021), 그리고...) (2021년 공저, e-book+paper book)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Design Innovator I loved(2020년 공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의 100년 돌아보기(2016년 공저) ■생각을 말해보(2015년 공저)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2006년 공저) 등이 있으며 ■토목, 인생, 무엇이 궁금해?(2023년) ■다리 구조 교과서(2017년)는 감수를 했다. 유튜브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2022년)〉 영상에 보다 자세한 저자 소개를 담았다. 2023년 봄호부터 시작한 본 도로교통저널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 연재에 이어, 2024년 3월부터 대한토목학회 학회지에 〈문화예술 속 토목구조물의 미학〉을 매달 연재하고 있다.

문지영 | 작가

외고, 예술학박사, 조경학석사, 공학박사  
 (sieyoungmoon@gmail.com)







청룡(靑龍)의 기개(氣概)가 웅솟음치는 2024년 새해가 밝았다. 다시 새로운 출발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소망 혹은 다짐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혹시 '무병장수(無病長壽)', '건강(健剛)'을 가장 으뜸으로 손꼽은 독자들이 계시는지?

과거 선조들은 정월대보름(正月大-)<sup>1)</sup> 날 밤에 '돌'다리밟기(=답교놀이)를 통해 1년(年) 12달(月)의 무병장수와 건강을 빌었다. 토목구조물 다리(橋梁)와 사람 다리(脚)의 동음(同音)에서 연상되는 연계 이미지로, 다리(교량)를 사람의 두 다리로 밟으면 다리병 가운데 각기병(脚氣病, 비타민 B1 티아민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이 낮고 다리(脚)가 더 튼튼해진다는 주술적인 믿음이 존재했다.

본 원고에서는 과거 돌다리에서의 다리밟기 행사(축제) 기록과 그림 등을 통해 돌다리 위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과 사고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9)의 <지봉유설(芝峰類說)><sup>2)</sup>,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sup>3)</sup>, 유득공(柳

得恭, 1748~1807)의 <경도잡지(京都雜志)><sup>4)</sup>에 그려진 다리밟기 모습을 상상해보자. 홍석모(洪錫謨, 1781~1857)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sup>5)</sup> 권용정(權用正, 1801~?)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sup>6)</sup>, H.N.앨런(H.N. Allen, 1858~1932)의 저서 <조선건문록><sup>7)</sup>에도 다리밟기 광경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돌다리밟기, 다리밟기, 다리밟이, 답교(踏橋), 답교놀이'는 특정 다리를 여러 번 왕복하거나, 다리 세 개 정도를 건너거나, 인근의 여러 다리를 돌아다니며 밟는 행사였다.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sup>8)</sup>,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해동죽지(海東竹

1) 정월대보름(正月大-), 정월(1월)의 보름날을 가리키는 말로,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한국의 전통 명절이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上元), 혹은 '오기일(烏忌日)'이라고도 한다. (출처: 나무위키)  
2) 조선시대의 백과사전  
3)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백과전서  
4) 조선 영·정조 시대의 문물제도와 세시에 관해 기록  
5) 음력 정월부터 12월, 그리고 윤달까지 포함한 일년의 세시풍속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세시기  
6) 조선 후기 한양의 연중 풍습과 놀이를 기록, 정월 초하루부터 설달그믐날까지의 32개 항목으로 구성  
7) 의사이자 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조선에 왔던 호레이쇼 뉴턴 앨런의 조선 건문 회고록  
8) 한양의 세시풍속에 관해 쓴 책

정월 보름에 달이 뜨면 그해에 풍년이 들 것인가를 점치며 다리밟기 놀이를 하는데, 이는 고려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대단히 성행했다. 남녘가 모여 다리 위에 들어서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으므로 법관이 심지어는 그것을 금지하고 체포하기까지 했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 中

정월 보름날 밤이면 우리나라 남녀들이 성안 큰 다리에 모여서 노는데 그것을 '답교(踏橋)'라 하며, 답교놀이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리병(脚病)을 앓는다고 한다.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中

달이 뜬 뒤 서울 사람들은 모두 종가(鐘街, 지금의 종로)로 나와 종소리를 듣고 헤어져 다리를 밟는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병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광통교(大廣通橋, 광통교), 소광통교(小廣通橋, 광교), 수표교(水標橋)에 가장 많이 모인다. 이날 저녁은 예(例)에 따라 통행금지를 완화한다. 따라서 인산인해를 이루어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떠들썩하다.

月出後 都人悉出鐘街 聽鐘散踏諸橋 云己脚病 大小廣通橋及水標橋最盛 是夕 例弛夜禁 人山人海 簫鼓喧轟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中

옛날 한양에서는 저녁에 종이 울리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다리밟기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잡을 이루었고, 수표교와 광교가 가장 심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中

한양 사람들은 모두 다리밟기를 하면서 밤이 새도록 놀고 즐기는데, 광통교(廣通橋)가 가장 붐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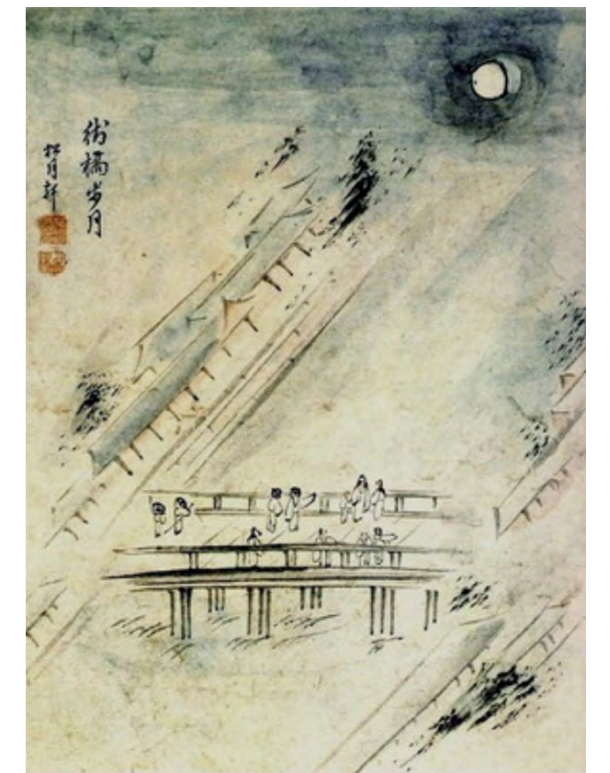
권용정(權用正)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中

첫 보름이 떠오르는 정월대보름날 밤에 달빛 아래로 나와 밟에 병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리를 건너가는 놀이를 한다.

H.N.앨런(H.N. Allen)의 <조선건문록> 中

枝)><sup>9)</sup> 기록에 따르면 12개의 다리를 밟아 지나가면 12달(1년)의 액운(厄運)을 면한다고 믿었다. 36개의 다리를 밟기도 했었는데, 권용정(權用正, 1801~?)의 <세시잡영(歲時雜詠)><sup>10)</sup>에 기록되어 있다. 다리를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각기병뿐만 아닌 갖가지 병들을 내쫓는다고도 여겨 많은 다리를 여러 번 건너는 이들도 있었고, 동네의 가장 큰 다리 혹은 가장 오래된 다리를 본인의 나이만큼 왕복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임득명(林得明, 1767~1822)의 <가교보월(街橋步月)>(그림)은 광통교(廣通橋)에 나와 답교놀이를 하는 장면을 그렸다. 천수경(千壽慶, ?~1818)이 지은 시(詩)를 읽고 종이에 수묵담채화로 표현했는데, 하늘에는 둥글고 큰 보름달



<그림1> 임득명(林得明), '옥계십이승첩(玉溪十二勝帖)' 中 <가교보월(街橋步月)>, 1786년, 수묵담채화, 24.2×18.9cm,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9) 조선 말기의 문신·서예가 최영년(崔永年)의 시집  
10) 설날부터 설날까지의 세시 풍속을 25수의 7언 절구 형식으로 읊조리고 있는 작품



이 휘영청 떠 있고 다리 위에는 10여 명이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달구경을 하고 있다. 간결한 붓놀림으로 청계천, 천변의 건물, 다리를 담백하게 그려 넣었다. 다리 위 인물을 배치한 솜씨는 매우 감각적이다. 청계천을 크고 시원하게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광통교를 화면의 중앙(살짝 아래)에 대담하고 반듯하게 그려 넣은 점은 조선시대의 회화작품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색적인 구도(構圖)라고 생각한다.

천수경(千壽慶)의 시(詩) '가교보월(街橋步月)'

대보름은 아름다운 명절이라  
술에 취하여 서로를 부르네  
달빛이 대낮처럼 밝으니  
봄놀이가 오늘부터 시작되네  
노니는 발끝이 큰길로 밝게 하고  
무리의 악기 소리가 광통교에 들끓는데  
통금도 없는 밤에 맘껏 이야기하니  
기쁜 마음이 갑절이나 더해라



〈그림3〉〈담교놀이(가칭)〉부분도, 작가미상.

담교놀이에는 사람이 몸을 이어 만든 인다리(人橋, 훗다리) 건너기(밧기), 다리를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그 다리를) 밟는 담교놀이, 강릉 지방에서는 다리빼앗기(때싸움과 비슷하여 위험했기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음, 이긴 편에 풍년이 들고 진 편에는 흉년이 든다고 여겼음)라는 이름의 담교놀이도 존재했다. 다리 위에서 햇불을 들고 다니며 불이 꺼지지 않으면 대길(大吉)하다고 믿는 담교놀이도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컫는 담교놀이는 광통교(廣通橋), 수표교(水標橋)와 같이 실재(實在)하는 (돌)다리를 밟으며 노는 것을 지칭한다.

다리를 밟는 날(음력 1월 15일)에는 남녀노소(男女老少), 신분(身分)의 귀천(貴賤) 구분 없이 함께 어우러졌는데, 차이와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절에도 이날만큼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유(自由)를 누렸다. 우측의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 기록을 읽어보자.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일부 양반들이 번잡함을 피하고자 15일 하루 전 날인 14일 밤에 다리밧기를 했으며, 이를 '양반다리밧기'로 불렀다. 〈상원야회도(上元夜會圖)〉에 그려진 광통교(廣通橋)(그림2) 위에서 시가(詩歌)를 읊조리는 선비들이 보인다. 정월대보름 달이 동실 떠올라 다리 위를 환히 비추고 있다. 심방(沈榜, 1540~1597)의 〈완서잡기(宛署雜記)〉 기록을 보면 부녀자들만 따로 다리밧기를 즐기기도 했는데(그림3), 16일 밤에 행했다.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sup>11)</sup>에도 부녀자들의 다리밧기 기록이 있다. 15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과 다음날까지 합하여 총 3일 동안 다리밧기 행사(축제)가 진행된 것이다. 어숙권(魚叔權, ?~?)의 〈패관잡기(裨官雜記)〉 기록에 따르면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가마를 타고, 조금 아래 신분인 자들은 머리에 비갑(比甲)을 쓰고, 서민 신분의 부녀자들은 떼로 모여서 다리를 밟았다고 한다.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부녀자들의 다리밧기 날에

11) 명나라 완평(宛平) 사람 우혁정이 담원춘 및 유통과 함께 저술한 책



〈그림2〉문인화가 누사(隨師) 오계주(吳啓周, ?~?), 〈상원야회도(上元夜會圖)〉에 그려진 광통교(廣通橋), 19세기 초

정월대보름 상원 날 밤에 열두 다리를 밟으면 일 년 열두 달의 액운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귀인부터 서민까지 늙은이나 병든 사람 말고는 다리밧기에 나오지 않는 이가 거의 없었다. 이 다리밧기 놀이는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놀이와 함께 일 년 중 가장 성대한 놀이이다. 이 두 밤을 해마다 임금께서 친히 명을 내려 야금(夜禁)을 해제하셨다.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中

16일 밤 부녀자들이 떼를 지어 보통 다리 부근에서 노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도액(度厄, 액막이)'이라고 한다고 하여 이것이 한국 풍속의 근원이라 하였다.

심방(沈榜)의 〈완서잡기(宛署雜記)〉中

대보름 저녁(元夕)에는 부녀자들이 서로 무리를 지으며 밤길을 거닐어 질병을 없애니, 이것을 '주백병(走百病, 모든 질병을 쫓는다는 뜻. 走는 물리친다는 의미)'이라 한다.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中

추잡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나라에서 이들을 벌했으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부녀자들의 다리밧기를 금했던 적이 있다고 전한다.

조선왕조실록 1770년(영조 46) 1월 14일(임진) 7번째 기사에는 "임금이 상원일(上元日)에 민간의 담교(踏橋)로써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밤에 통행금지를 해제하게 하였으니, 백성들과 태평을 같이 즐기는 뜻을 보인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다리밧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왕조실록 1791년(정조 15) 기록에는 정월대보름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성을 나가 다리를 밟을 수 있도록 3일간 통행금지를 풀고 숭례문(崇禮門)과 흥인문(興仁門)의 빗장을 온종일 열어 놓았다고 적혀있다. 이날의 다리(교량)는 보름날 밤 놀이에 나온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이 눈을 맞춘 후,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때로는 사당패들과 기녀들이 재주와 자랑을 털어놓는 곳으로도 이용되었는데, 나라에서는 이것이 민간에 폐를 많이 끼친다고 판단하여 한때 금하기도 했다. 광통교의 담교놀이 다음으로 성행한 수표교(水標橋)에서의 담교놀이 기록을 보면 조선 중기의 담교놀이가 얼마나 질퍽하게 벌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림4〉 답교놀이 (©문지영 작품)



“이안놀이 정월대보름날 친구들과 수포교의 다리밟기에 어울렀다가 술에 취해 다리 부근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깨어 보니 자기 집이 아니었다. 소스라쳐 놀란 이안놀은 옆의 신부를 흔들어 깨웠다. 신부도 이안놀을 보고는 크게 놀라 말을 하지 못하였다. 알고 보니 신혼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랑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집의 하인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수포교 부근에서 만취해 쓰러진 이안놀을 이 집 신랑인 줄 알고 업고 들어와 생긴 일이었다. 이안놀의 신분을 확인한 신부는 자신을 소실로 맞아 주길 부탁하였다. 이안놀은 아직 엄친 슬하에 과거에 오르지 못한 주제에 두 여인을 거느릴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신부의 간청에 못 이겨 신부를 데리고 그 집을 몰래 빠져 나왔다. 그리고 이안놀이 과거급제를 한 후 신부 집에 연락하여 신부를 소실로 맞이하였다.”

실버들 늘어진 개울가에 달 밝은 밤이면 풍류남아가 다래머리 올린 예쁜 처녀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정회를 속삭이기도 하고<sup>12)</sup>....

달보라고 내보냈더니  
님만 보고 돌아오네 (아리랑 후렴)

장안이 갑자기 떠들썩하여 수상히 여겼더니  
오늘 밤이 다리밟기라  
달이 한길 위에 떠오르자  
부르고 따르는 노랫소리 요란하다  
\_ 김창업(金昌業)

답교놀이가 벌어진 날에는 부녀자들이 음식물을 냇물에 던져 복을 빌기도 했고, 남자들은 농악을 앞세워 무등을 서기도 했으며, 다리 위에서 혹은 근처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한바탕 즐기기도 했다. 다리밟기를 하고 나서는 본인의 저고리 동정을 뜯어 엽전을 싸서 다리 아래로 던지거나 다리 한구석에 놓아두기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健剛)하고 무병(無病)하여 장수(長壽)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들 엽전은 다리 인근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들의 연날리기, 보름달 햇불놀이 등 여러 놀이가 옛 돌다리 위에서 정월대보름에 벌어졌다.<sup>13)</sup> 특히 수포교에서는 정월에 연날리기가 종종 열렸다.<sup>14)</sup> 다리밟기에는 돌다리(석교)만 쓰인 것은 아니다. 나무다리(목교)를 밟는 경우도 있었다. 다리를 놓으며 밟는 경우에는 징검다리의 형태였으리라. 차츰 유희성이 가미되면서 놀이때가 따로 조직되었고 다리가 없는 곳에서 민중의 오락 놀이 및 공연 문화로 변모 및 전승되기까지 했다.

대표적인 공연문화행사로 ‘송파(松坡)다리밟기’(그림 5)가 있으며 1990년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한내돌다리밟기’처럼 이전에 쓰이던 다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서 ‘돌다리밟기 행사’로 복원된 예도 있다.

12) 황호근(1970), 『韓國의 美(乙酉文庫31)』, 서울: 乙酉文化社, pp.93-94  
13) 황호근(1970), 『韓國의 美(乙酉文庫31)』, 서울: 乙酉文化社, pp.93-94  
14) 이재원(1975), 『李氏 朝鮮 時代의 橋梁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專攻 석사논문, p.42

전국에 분포하는 답교놀이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나열해 보겠다. 앞서 밝힌 광통교, 수포교 등지에서 답교놀이를 포함하여, 서울 금천다리밟기, 서울 송파다리밟기(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호), 강원도 강릉 사천 화평 답교놀이(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0호), 강원도 동해 북평원님 답교놀이, 과천 무동 답교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 안양 만안교 다리밟기(경기도유형문화재 제38호), 전남 강경 미내다리(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1호)밟기, 전남 강진군 다리밟기, 전남 여수 고흥 다리밟기, 전남 여수 흥국사 흥교(대한민국 보물 제563호) 다리밟기, 전북 전주시 남천교·서천교 다리밟기, 충남 보령 12칸 돌다리밟기, 충남 서산 다리밟기, 충남 청양군 읍내리 다리밟기, 충남 한내돌다리밟기, 충북 옥천 청산 교평다리밟기 등이 떠오른다. 전국에 더 많은 크고 작은 다리밟기 행사가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리밟기도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5〉 송파(松坡)다리밟기 공연 (출처: 송파구청, 2018)

15) 북경의 세시기. 북경 지역에서 예전부터 전래되어 온 각종 민속행사를 기록

비교민속학(比較民俗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답교놀이는 중국의 ‘주백병(走百病, 走橋)’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중국 육계공(陸啓宏)의 『북경세화기(北京歲華記)』<sup>15)</sup>와 우혁정(于奕正)의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 기록되어 있다. 이경재의 『다큐멘터리 서울정도육백년』(1993)에서는 답교놀이가 중국 연경(燕京)에서 온 풍습이며, 한국에서는 종종 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중국의 답교놀이는 단순한 액(厄)막이용 놀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답교놀이는 한국, 중국, 일본에 공통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 내용에 따르면 본 풍습은 ‘답교지희(踏橋之戲)’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교놀이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주장으로는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성행하였던 대보름날 밤의 연등놀이가 불교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답교놀이로 변화된 것일 수 있다는 설(設)이 있다. 앞선 내용들과는 무관하게 여자의 기운인 음기(陰氣)를 발산한다고 믿은 달(보름달)의 기운을 충만하게 얻어 아이를 잘 잉태하기 위해 달밤에 답교놀이가 생겨난 것일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믿거나 말거나?

풍속화가 김준근(?~?)의 『정월망일에 답교하는 모양』(그림 6, 부분) 속 인물들은 이마가 넓고 긴 얼굴에 말끔하면서도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색감이 뛰어나며 선이 선명하고 작가 특유의 표현력이 살아 있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그림 속 세 인물은 튼튼한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작품명을 보니 답교(踏橋) 중이라고 한다.

답교놀이 대상 교량으로는 ‘석교(돌다리)’가 주로 쓰였는데, 석재교량의 형태적 견고함, 구조적 안전성, 영구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무병과 장수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돌이 주는 ‘무거움, 고요하게 존재함, 튼튼함, 단



〈그림6〉 김준근, 〈정월망일에 답교하는 모양〉(부분), 1880년대, 종이에 채색, 16.9×13cm, 프랑스 파리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단함, 딱딱함'의 이미지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물론 세일, 사암과 같은 경도(硬度)가 낮은 즉 무른 석재도 있지만 이들 재료는 다리(교량) 가설에 쓰기엔 무리가 있으니 제외한다. 돌다리 가설에는 나라별·지역별로 맞춤형 석재가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자 수급(석재 채굴 및 운반)이 쉽고 경도가 높은 '화강암(花崗巖)'이 주로 사용되었다.

내친김에 우리나라 옛 속담 속 '돌다리/돌'의 존재감도 알아보자. 튼튼하고 단단한 존재로 돌다리와 돌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비록 잘 알아서 틀림이 없는 일이라도 조심하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다.**

▶ 지나치게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

**돌도 십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 무슨 일이나 정성을 들여 애써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돌로 돌 때리듯**

▶ 저쪽에서 악하게 하면 이쪽에서도 악하게 대한다.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

▶ 원수는 원수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게 되는 것이며 남이 나를 대하는 것만큼 나도 남을 그만큼 밖에는 대접하지 않는 태도를 이룸.

**돌부리를 치면 발부리만 아프다.**

▶ 쓸데없이 화를 내면 저만 해롭다.

**돌을 치면 발부리만 아프다.**

▶ 화난다고 아무 상관없는 이에게 분을 풀면 도리어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 역경을 무릅쓰고 거슬리면 더 괴로움을 받는다.

**돌 부쳐도 꿈적이다.**

▶ 남편이 첩을 보면 아무리 무던한 부인도 화를 낸다.

**돌 절구도 밀 빠질 날이 있다.**

▶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도 결단이 날 때가 있다.

▶ 영구불변한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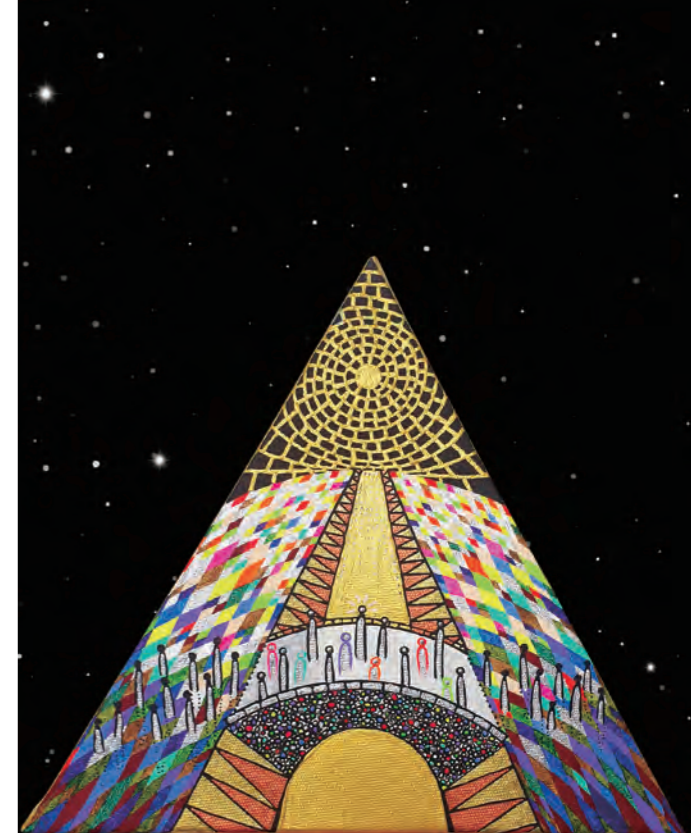
▶ 명문(名門) 거족(巨族)이라고 영원히 몰락하지 않는 법은 없다.

**돌 지고 방아 찧는다.**

▶ 디딜 방아를 찧을 때는 돌을 지고 하는 것이 더 쉬우니, 힘을 들여야 무슨 일이나 잘 된다.

'답교놀이'는 국가에서 공인한 온 백성의 축제였다. 다리를 밟음으로써 건강이 지켜지며, 복이 들어오고, 액운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행해졌고, 선남선녀의 사랑이 맺어지기도 했으며, 신분과 성별의 차별 없이(일부 그룹에서는 차이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춤과 노래, 풍족한 음식과 술로 자유를 만끽했던 자리였다. 다리밟기를 통해 개인과 이웃의 건강, 평안, 액막이, 행복을 기원했다. 다리(교량)를 매개로 한 민속놀이(답교놀이 포함)와 민속 신앙의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궁금하다면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문지영 저)<sup>16)</sup> 단행본을 참고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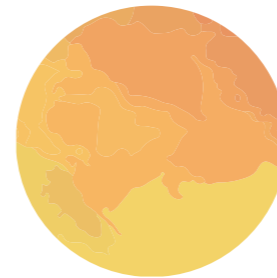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답교놀이 축제를 직접 찾아가서 즐겨보자. (돌)다리 위에서 달님에게 소원도 빌어보고, 혹시 아는가, 모두 다 이루어질지? 🇰🇷



〈그림 7〉 답교놀이 (©문지영 작품)

**보름달 기도**

이해인 수녀



둥근 달을 보니  
내 마음도 둥글어지고  
마음이 둥글어지니  
나의 삶도 금방 둥글어지네

몸속까지 스며든  
달빛에 취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노래를 하고

온 우주가 밝아지니  
나의 기도 또한 밝아져서  
웃음이 출렁이고  
또 출렁이고

16) 문지영(2022 초판 3쇄, 2012 초판),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pp.182~193